

달구벌 '별중의 별'은 누구?



지난해 미스터 올스타 KIA 안치홍.

■ 프로야구 올스타전 오늘 대구서 개막 웨스턴리그·이스턴리그 46명 별들의 잔치 홈런레이스 최희섭·이대호 파워 대결 볼만

프로야구 별들의 별이 한자리에 모인다. 24일 대구구장은 여름의 열기보다 더욱 뜨거운 프로야구 열기로 뒤덮이게 된다. 13년 만에 대구를 찾게 된 올스타전은 화려한 스타 선수들과 풍성한 볼거리로 프로야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KIA 안치홍 등 7명 출전

◇2010 프로야구 올스타 8개구단 그리고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 46명이 올스타전 초대장을 받았다. 팬들의 투표로 선정된 웨스턴리그, 이스턴리그의 '베스트 10' 20명을 포함해 양 리그 사령탑을 맡은 KIA 조범현 감독과 SK 김성근 감독이 추천한 선수들이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KIA에서는 인기투표에서 1위에 오른 내야수 안치홍과 최희섭 그리고 외야수 이용규와 감독추천을 받은 투수 양현종·손영민과 포수 김상훈 등 7명이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이스턴리그 롯데 조정훈은 생애 처음으로 베스트 10에 선정돼 웨스턴리그의 류현진(한화)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박종윤(롯데), 강정호(넥센), 이대형(LG), 김태완(한화)도 입단 후 처음으로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올스타전을 앞두고 넥센에서 롯데로 트레이드되면서 홍역을 치른 황재균도 처음으로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웨스턴리그는 황재균의 트레이드로 한 명이 늘어난 이스턴리그 선수

(23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 KIA 김선빈과 LG 오지환을 추가로 선정했다. KIA의 잠수함 손영민을 비롯해 넥센 금민철·손승락·김민우, 한화 최진행은 감독추천을 받아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외국인 선수로는 롯데의 가르시아와 넥센 클락이 나란히 이스턴리그와 웨스턴리그의 외야수 부문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올스타전의 백미 홈런레이스에는 '빅쇼이' 최희섭을 포함해 박정권(SK), 김현수(두산), 이대호·홍성흔(이상 롯데), 클락(넥센), 조인성(LG), 최진행·김태완(이상 한화), 조동찬(삼성) 등 10명이 파워 대결을 벌인다. 이번 홈런 레이스는 예년과 달리 예선을 거치지 않고 7아웃 단판제로 진행된다. ◇풍성한 별들의 잔치 4년 연속 5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프로야구의 인기는 베스트 10 투표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 11일까지 41일간 전국의 야구장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된 베스트 10 인기투표 최종 투표수는 162만2472표를 기록했다. 지난해 14만1532표를 넘어서 역대 최고 득표수다. 지난해에 비해 투표 기간이 일주일 가량 짧았고, 월드컵과 장마 등이 겹치는 등 약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3년 연속 총 투표수 100만표를 넘어서었다. 프로야구 인기와 함께 이번 올스타전에는 사상 최고 금액인 1억원짜리 홈런존도 등장한다.



올스타전의 백미 홈런레이스에는 최희섭 등 10명이 출전해 힘 대결을 벌인다.

2010프로야구 공식음료 협찬사 한국야구르트가 구장 우측에 500인치 대형스크린과 함께 '산타페 일러스트 홈런존'을 설치한다.

비거리 134m에 달하는 홈런존을 맞힌 타자에게는 올스타전 사상 최고의 금액인 1억원 상금이 지급된다. 상금의 50%는 야구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

'산타페존' 맞히면 상금 1억원

다. 홈런을 친 선수들에게도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기자단 투표에 의해 선정되는 '별중의 별' 미스터 올스타에게는 기아자동차 K5가 부상으로 마련됐다. 올스타전 승리팀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역대 통산 전적에서는 이스턴리그가 21승12패로 웨스턴리그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스타의 스타들

'야구 천재' 이종범은 야구 실력만큼이나 팬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스타 중의 스타. 입단 첫해인 1993년 웨스턴리그 유격수로 베스트 10에 선정된 뒤 지난해 외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총 13번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올 시즌 역대최대인 통산 14번째 베스트 10에 도전했지만 웨스턴리그 외야수 부문 5위에 오르는데 그쳐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다.

올스타 최다 투표의 기록이 만들어진 올해 역대 최다 득표 기록도 경신했다. 롯데 홍성흔은 이스턴리그 지명타자 부문에서 81만8269표를 획득하면서 지난해 두산 김현수가 기록한 76만1290표를 뛰어 넘어 역대 최다 득표 선수로 선정됐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가발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홍성흔은 2010 올스타의 스타로 등극하며 최고인기상을 수상, 2백만원의 상금도 받게 됐다.

'아기 호랑이' 안치홍도 올스타전의 새로운 기록을 쓴 스타다. 지난해 KIA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은 고졸 신인 최초로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올스타 무대에서 '한방'을 쏟아내며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의 기록까지 새로 썼다.

한편 인기투표에서 1983년 당시 OB 신경식이 89.9%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베스트10에 뽑혔고, 이만수 SK 2군 감독과 양준혁은 역대 최다인 4차례 최다득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행 안내

산행 안내, 행사 정보, 지역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섹션.

지역 소식

광주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

스포츠

스포츠 관련 뉴스와 정보.

문화

문화 관련 뉴스와 정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련 정보와 서비스.